

Weekly Market Report

Apr 18, 2022

본 리포트는 해운시장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Summary

	Drybulker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 파장
	Tanker	VLCC 활동성 둔화
	Container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Sale & Purchase	컨테이너선 매물 부재



Macro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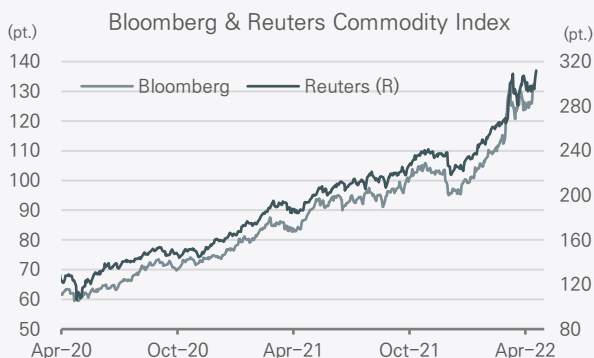
Foreign Exchange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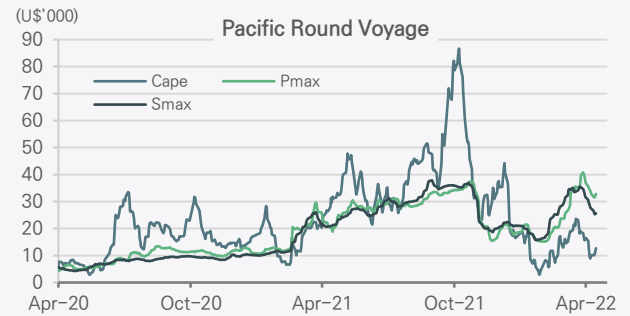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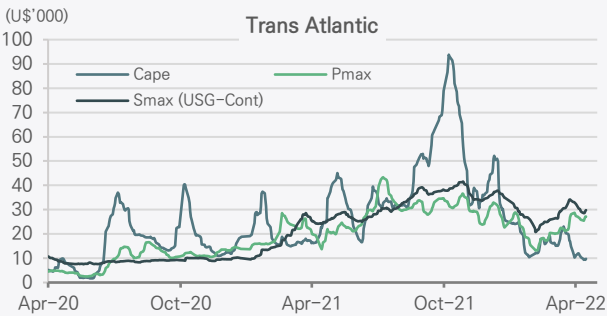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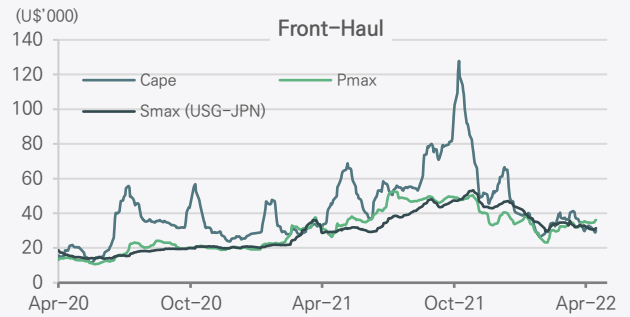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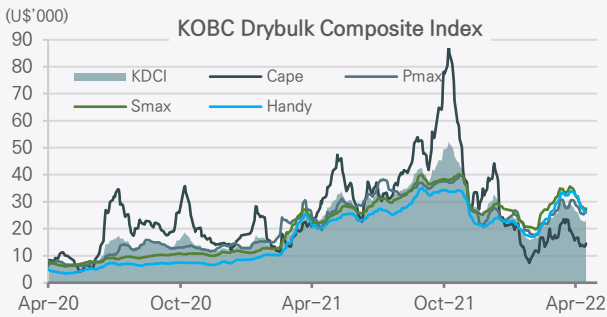


Commodity Index



Stock Market





	KDCI	Cape				Panamax				Supramax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4/15	23,255	14,441	30,063	9,775	12,650	26,892	36,100	27,070	33,000	27,448	31,293	29,750	25,598
4/8	23,187	14,076	31,913	10,388	10,125	25,680	34,500	25,780	32,000	28,459	30,679	29,186	27,499
증 감	▲ 68	▲ 365	▼ 1,850	▼ 613	▲ 2,525	▲ 1,212	▲ 1,600	▲ 1,290	▲ 1,000	▼ 1,011	▲ 614	▲ 564	▼ 1,901

Cape 부활절 이전 수요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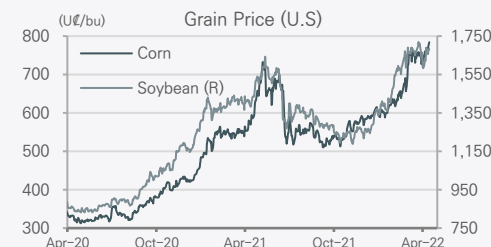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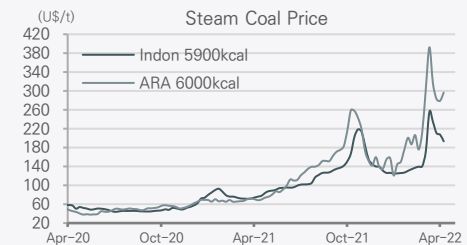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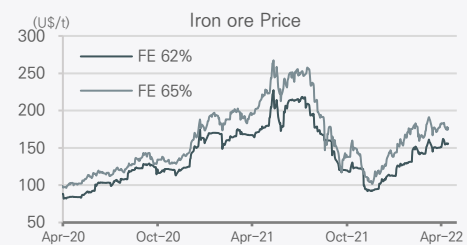
- 상하이 인근 체선 심화로 인한 선박 공급 부족, 주 후반 서구권 부활절 연휴(4.15~18) 이전 물량 집중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 상하이항 건화물선 대기 척수는 1개월 전 대비 약 15% 증가한 약 220여 척으로 집계
 - 르자오, 칭다오 등 인근 항만으로 체선이 전이되며 태평양 수역 선박 공급 차질 발생
 - 한편 탄산의 봉쇄 해제(4.11)에도 불구하고, 장자강, 한단 등 다른 주요 철강 도시들의 봉쇄가 지속되며 철광석 수요는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함
- 중국 국무원, 지방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상황 중이라도 물류 차질 최소화 지시
 - 이에 내륙 물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국 내 지역간 이동은 여전히 제한되어 철강 및 철광석 수요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음
- 제철소들은 여전히 철광석 신규 수입보다는 항만 재고 중심으로 물량을 조달하여, 중국 철광석 항만 재고량은 3주 연속 감소, 지난해 11월 이후 최초로 1억 5천만 톤 이하로 하락
- 상하이 지역의 봉쇄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케이프 시장 회복 기대감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P'max 석탄을 잡아라

- 유럽 및 아시아항 석탄 수요 증가, 부활절 이전 수요 집중 등의 영향으로 상승
- 유럽위원회, 오는 8월 중순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 발표(4/8)
 - 이에 향후 유럽항 석탄 공급 감소 및 석탄 물량 확보 경쟁 심화를 예상한 석탄 수입자들이 재고 비축에 나서며 유럽항 물동량 증가
- 중국의 석탄 수입 수요는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 봉쇄 지속에 따라 부진한 상황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 확보 수요가 유입되며 태평양 시장 지지
 - 일본, 유럽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결정하여 대체물량 확보 시도 중
 - 인도네시아, 몬순 시즌 도래를 앞두고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주요 발전소들의 석탄 재고는 9일치 미만으로 하락. 이에 정부가 전력난 방지를 위해 발전소들의 수입 증대 촉구 중
- 금주 유럽과 아시아의 석탄 확보 수요가 지속되며 건조한 상황 이어지겠지만, 중국 봉쇄 장기화에 따른 원료 수요 위축은 추가 상승을 제한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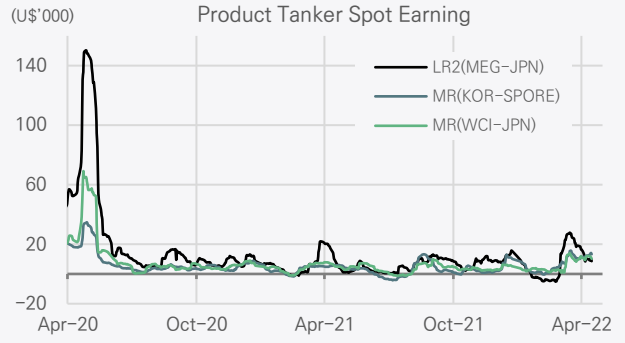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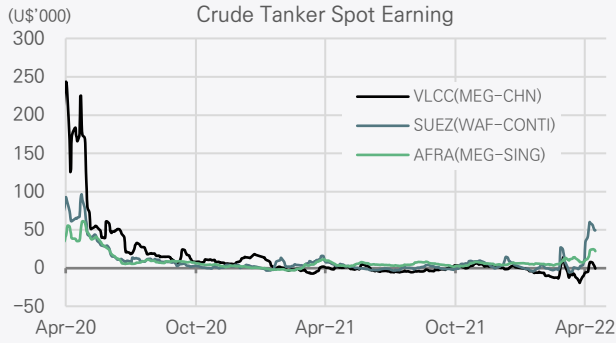
S'max 다시 대서양

- 주 후반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상승 전환되었으나, 주 초 약세에 따른 주간 보합세 구현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옥수수 대체 구매 수요가 USG와 PNW 지역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부활절 연휴 이전 물량을 처리하려는 수요가 더해지며 해당 항로들이 상승을 주도
- 태평양도 중국 이외 주요 석탄 수입국들의 수요 증가와 백운 철재 화물의 꾸준한 선박 수요에 힘입어 주 후반 상승 전환
- 금주 석탄 물동량 증가에 따른 태평양 중심의 회복세 예상되나, 대서양은 연휴 이후 활동성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Tanker Spot Earning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	Aframax (MEG-SGP)	LR2 (MEG-JPN)	MR (KOR-SGP)*
WS	51.77 ▼ 2.87	168.86 ▼ 16.14	181.11 ▲ 5.55	135.71 ▲ 5.71	19.99 ▲ 1.69
TCE(US\$/day)	-571 ▼ 8,583	49,344 ▼ 9,477	22,262 ▼ 1,561	8,684 ▼ 1,545	13,301 ▲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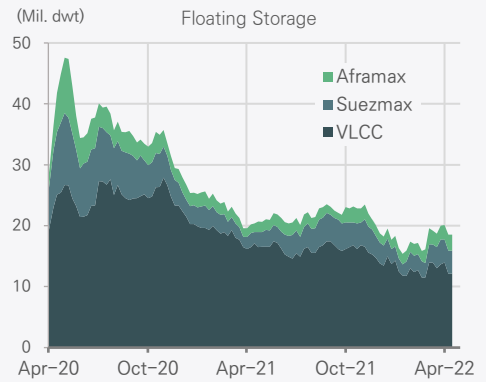
원유수선

- VLCC: Suezmax 운임 조정 및 부활절 기간 성악 활동 둔화에 시황 하락세 전환 - 중동/중국 구간 TCE 마이너스 구간 재진입.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에 정제가동률 하락. 석유 수요 감소 전망은 시황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
- Suezmax: VLCC로 화물 전환 확대. 서아프리카/유럽 구간 WS 주간 8.7% 하락 - 4월 초 운임 급등에 따른 대서양 수역의 공선 유입 증가도 단기시황 하방 압력
- Aframax: 선박 수급 개선 및 꾸준한 화물 유입에 중동/동남아 구간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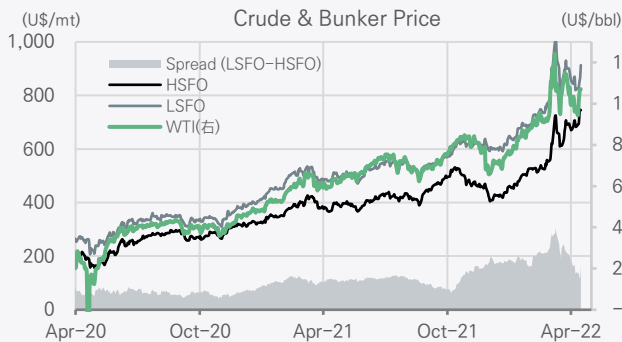
제품수선

- LR: 아시아/유럽 구간 경유 등 물동량 증가하며 시황 반등. 주간 WS 4.4% 상승 - 다만 중동/동북아 구간 남사 물동량 둔화는 상승폭 제한. 유럽/동북아 남사 가격 Spread도 플러스를 유지하며 차익거래 유인 축소
- MR: 중국 석유제품 수출 증가 및 동북아 지역 가용 선박 감소에 시황 상승세 유지 - 중국 봉쇄조치로 자국 내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하자, 수출로 전환되며 운임 시황 견인. 다만 정제가동률 하락에 따른 제품 생산 감소는 단기 시황 상승폭 제한

※ MR(KOR-SGP) 운임 : US\$/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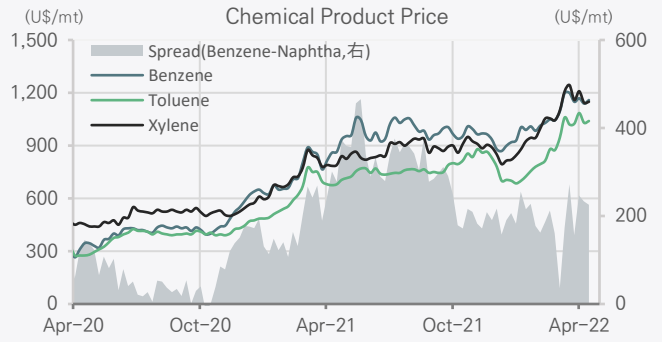


Crude & Product Price



	WTI	HSFO	LSFO	Spread
가격*	106.95	744.50	913.50	169.00
증 감	▲ 8.69	▲ 62.50	▲ 90.50	▲ 28.00

※ Bunker Price : Singapore 기준



	Benzene	Toluene	Xylene
가격	1160 ▲ 20	1040 ▲ 10	1150 ▲ 5
Spread*	225 ▼ 8	105 ▼ 18	215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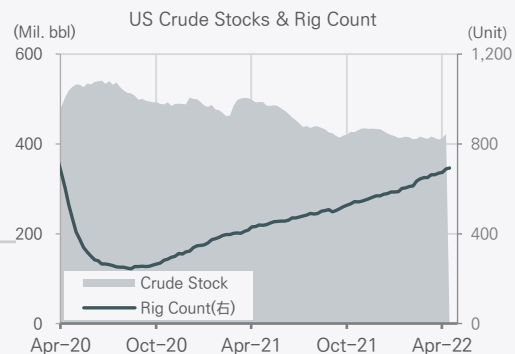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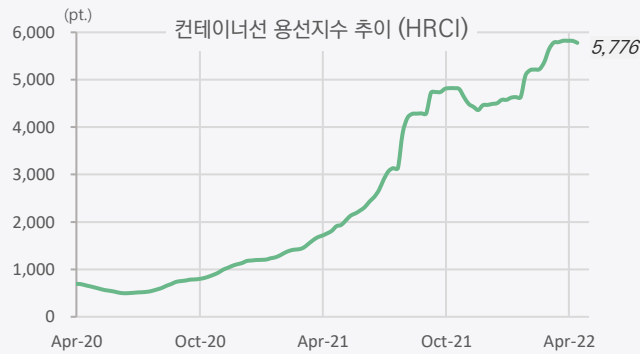
- 러시아 석유 공급 차질 우려 증대에 주간 WTI 8.8% 상승 - OPEC 러시아 석유 공급 감소분 대체 불가 및 기존 생산 방침 고수 입장 표명 - IEA 러시아 석유 공급 차질 규모를 4월 150만 b/d, 5월 300만 b/d로 전망 - EU 러시아 석유에 대한 단계적 수입 금지 방안 검토 중
- 미국 원유 상업 재고는 전주대비 938만 배럴 증가하며 유가 상승폭을 제한 - 원유 순수입량 증가(121만 b/d) 및 정제가동률 하락(2.5%)은 재고 증가를 야기 - 반면 석유제품 수출 증가에 휘발유, 경유 재고는 각각 365만, 290만 배럴 감소

연료유가

- 원유 공급 차질 및 가격 상승으로 주간 LSFO, HSFO 각각 11%, 9% 상승 - LSFO는 경유 정제마진 상승하며 황 저감용 배합원료(VGO) 공급 부족 발생 - HSFO는 공급사 제한, 성분 분석 강화 및 일부 급유선의 오염 연료유 제거 작업 투입 등 오염 연료유 급유 사고 여파 지속. 유종간 가격차는 전주대비 20% 확대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패널리스트, GMP



항로별 운임지수

항로	금주	전주	+/-	'22평균	+/-		
美서안	7,860	7,860	-	0	7,999	▼	139
美동안	10,649	10,581	▲	68	10,908	▼	259
유럽	6,086	6,157	▼	71	7,175	▼	1089
지중해	6,738	6,773	▼	35	7,208	▼	470
동남아	1,035	1,054	▼	19	1,279	▼	244
중동	2,471	2,563	▼	92	3,235	▼	764
호주	3,514	3,621	▼	107	4,207	▼	693
남미	6,528	6,650	▼	122	8,483	▼	1955
日서안	346	339	▲	7	322	▲	24
日동안	335	329	▲	6	303	▲	32
한국	340	340	-	0	391	▼	51
동서Africa	6,573	6,597	▼	24	7,029	▼	456
남Africa	5,520	5,526	▼	6	5,970	▼	450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용선 계약

선형	건조*	기간	\$/Day	+/-**	계약 주차
피터 700	A	24개월	18,000	▼10,500	4월1주
피터 1,100	A	22개월	34,000	▲3,000	3월2주
피터 1,600	C	12개월	54,000	-	3월5주
피터 2,200	A	37개월	36,500	▼6,000	3월2주
피터 2,700	A	48개월	41,000	▼4,750	3월5주
내로우빔 5,000	B	60개월	42,550	▼750	4월1주
와이드빔 5,500	A	37개월	72,500	▼15,750	3월2주
중형 7,000	A	60개월	21,350	▼28,650	2월1주
중형 9,000	A	54개월	64,000	▼1,000	12월2주

*A: '05년 이후 / B: '01~'05년 / C: '01년 이전 **직전 계약 대비

시장 동향

종 합

- ° '22년 15주(4.11~4.15) SCFI 종합지수 '4,228.7p' 기록. 북미, 일본을 제외한 전 항로에서 약세가 계속되며 13주 연속 하락
- 중국 상해에서는 필수 업종의 영업이 재개되며 봉쇄 조치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닝보/항저우 등 인근 지역의 내륙 운송 제한 및 트럭 부족이 계속되며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
- 중국의 3월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는 각각 1.5%/8.3%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ING는 '22년 세계 GDP 전망을 4.6%로 하향 조정(기존 4.8%)하며 중국 경제의 부진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미주항로

- ° 미 서안 전주와 동일, 동안 항로 2주 연속 소폭 상승
- 타 지역 대비 건조한 수요를 유지하며 운임 횡보. 3월 아시아-북미 수출 물동량은 180만 TEU를 기록하며 21개월 연속 성장. 다만 최근 연이은 악재로 인해 중국발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한 반면, 한국발, 베트남발은 각각 4%, 11% 증가
- 러-우 전쟁 및 중국 봉쇄 등 악재의 영향으로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8.5% 상승, 이는 '82년 이후 40여년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향후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시도 예상

유럽항로

- ° 유럽 항로 12주 연속 하락세
- 연초 이후 하락세 지속되며 4월 말까지 기존 운임 연장 움직임 나타남. 상하이 봉쇄 및 임시결항 여파로 선사들은 타 항만에서의 추가 선적을 통해 소석을 제고 추진. 선사간 화물 확보 경쟁 심화는 해당 지역에서의 운임 하방 압력으로 작용 할 것
-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7.5% 상승. 국가별로 독일 7.3%, 영국 7.0%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유럽 중앙은행, 지난 4/15일 금리 동결을 발표했으나,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금리 인상 압력 증대 전망

연근해/기타

- ° 동남아 항로 13주 연속 약세
- 중국 봉쇄로 인한 노동력 제한이 산업 생산/물량 감소를 야기시키고 있음. 라마단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등 일부 이슬람권 국가의 수요 약세. 인도양의 주요 환적항인 콜롬보의 정체 심화(정치/경제 이슈)로 동남아항 환적 화물이 인도 항만으로 전환되는 추세

주요 뉴스

- ° 『중국 정부, 항만 시설 정상화를 위한 업계 협조 요청』(로이드리스트 22.4.13)
- 중국의 도시봉쇄 조치로 인해 내륙운송과 창고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상하이항 임시결항 계획을 발표. 중국 정부는 상하이국제항만그룹(SIPG) 및 지방교통당국을 통해 선사들이 항만시설을 정상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 화주들은 봉쇄 초기에 상하이항에서 인근 닝보항으로 우회했으나, 최근 닝보의 내륙 운송도 어려워짐에 따라 바지선을 통해 상하이항으로 화물을 이동 중
- °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8.5% 상승, 40여년만에 최대폭』(파이낸셜타임즈 22.4.13)
-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8.5% 상승,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미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식품 가격 급등과 중국의 도시봉쇄로 인한 물가상승 위험에 대해 경고.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

신조선

- 선가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발주량은 다소 소강상태 구현
- LPG운반선: Mitsui OSK Lines 87,000 CBM 1척 발주

중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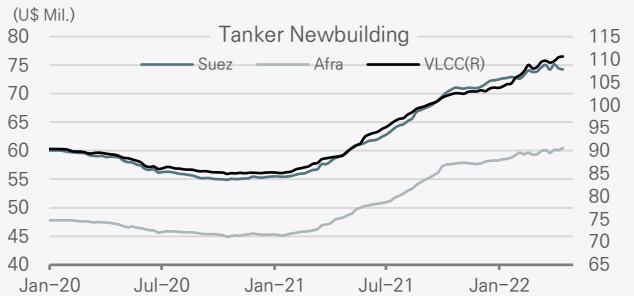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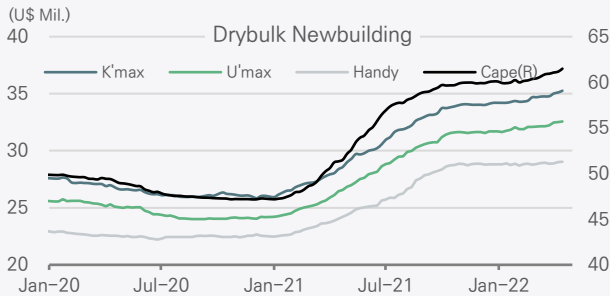
- 선령 10년 미만 중소형 건화물선, 대형 유조선 거래 활발
- 컨테이너선 매출부족으로 거래 부진

해체선

- 철강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요 증가 지속. 해체가격은 라마단 기간 중 활동성 둔화로 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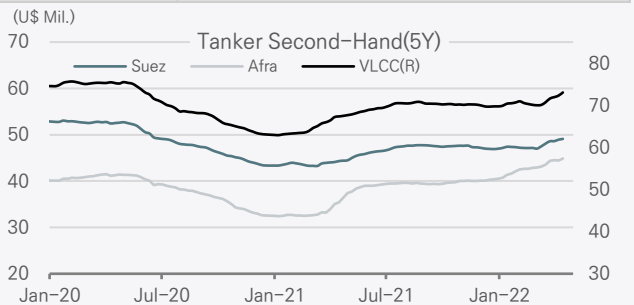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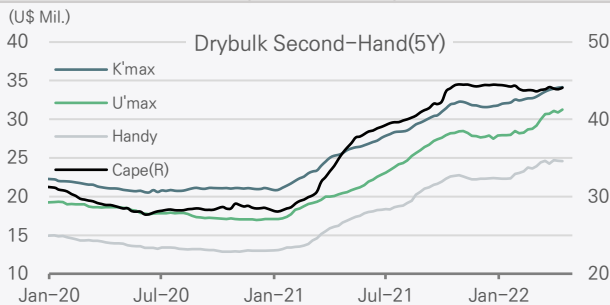
Newbuilding & Resale Pric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Drybulk	Cape	180K	61.51	▲ 0.33	60.51	55.18	60.38	▲ 0.41	59.00	53.02
	Kamsarmax	82K	35.27	▲ 0.15	34.61	30.78	41.07	▲ 0.22	39.88	33.18
	Ultramax	64K	32.58	▲ 0.06	32.10	28.54	38.42	▲ 0.27	36.33	30.58
	Handy	33K	29.03	▲ 0.02	28.87	25.96	30.11	▼ 0.30	29.55	25.24
Tanker	VLCC	310K	110.64	▲ 0.17	107.84	95.04	98.80	▼ 0.08	98.42	94.02
	Suezmax	160K	74.29	▼ 0.18	73.80	63.74	69.34	▲ 0.13	68.57	63.40
	Aframax	105K	60.49	▲ 0.41	59.53	51.88	58.60	▲ 0.77	56.72	5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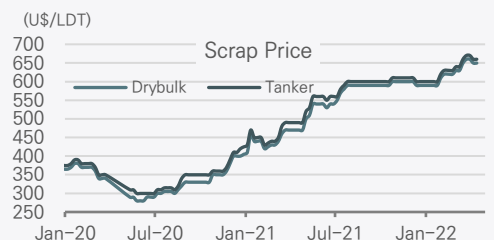
Secondhand Price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Drybulk	Cape	180K	44.07	▲ 0.20	43.98	38.08	31.75	▲ 0.30	31.58	27.54
	Kamsarmax	82K	34.13	▲ 0.06	32.99	27.60	24.57	▲ 0.11	23.68	19.46
	Ultramax	64K	31.24	▲ 0.35	29.33	23.40	21.83	▲ 0.06	21.26	16.54
	Handy	33K	24.60	▼ 0.04	23.65	18.52	16.89	▼ 0.28	16.28	12.29
Tanker	VLCC	310K	73.00	▲ 0.74	70.82	68.22	49.60	▲ 0.25	47.55	45.96
	Suezmax	160K	49.10	▲ 0.16	47.72	45.99	33.54	▲ 0.41	31.60	30.59
	Aframax	105K	44.88	▲ 0.40	42.94	37.58	29.20	▲ 0.52	27.44	24.03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Bulker	670	-	604	507	650	-	624	533
Tanker	680	-	614	517	660	-	634	544



KOBC Drybulk Panelists

	Ildo Chartering		Jangsoo Shipping		Flaship		Ascent Bulk
	Daesang Shipping		Basim Chartering		Max-Bridge		Greatwall International
	Ace Chartering		Kaya Shipping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Good Turn Transportation		Evershine Consulting		Ocean Robin Shipping
	Howe Robinson Singapore		OHY Shipping		BNS Shipping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Forocean Shipbroking		Hanwon Maritime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Kims Maritime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SSY London
	Haidely Shipping		STL Shipping		HIT Marine Company		Reshamwala Shipbrokers
	Seasure Shipbroking		Mcquill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SSY London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Seoul Line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Euroline Global
	Tradlinx		Taewoong Logistics				